

“내나이 50 이제야 노래 좀 알겠네요”

데뷔 30주년 이승철



“9살짜리 둘째 딸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30년이면 1만일이 넘는다고요. 1만일이 넘어가니 이제야 노래가 뭔지, 사람 관계가 뭔지 알겠어요.”

1986년 밴드 부활 1집으로 데뷔한지 30년이 된 이승철(50)은 강산이 세 번 바뀌고서야 노래가 뭔지 좀 알겠다고 했다. 26일 오후 1시3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타워 내 더쥬아트센터에서 연 데뷔 30주년 기자회견에서다.

그는 “내가 서른을 갓 넘은 나이였던 1994년 미국 뉴욕에서 ‘색깔 속의 비밀’을 녹음했다”며 “그때 함께 작업한 세계적인 프로듀서 닐 도르프스만이 50세였는데 ‘음악은 50세부터 제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내가 올해 딱 50세다. 비로소 공연을 준비하며 노래를 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노력할 것이고 지금부터 시작이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래를 좀 알겠다는 의미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그간은 음악을 들려주기 급급했고 성적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무대에서는 만감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이제 무대에서 무어지경에 빠져 노래하게 되고 무대에서 행복하다는 걸 느끼죠. 마음도 편안해졌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30년간 현장에서 뛰며 한국 가요계의 풍경이 달라지는 걸 몸소 체득했다.

그는 “내가 LP로 데뷔해서 CD와 디지털 음원 시대를 거쳤다”며 “또 우리 때는 노래하나만 잘해도 빅스타가 됐지만, 지금은 여러 조건을 갖춘 멀티태이너, 글로벌 스타를 위해 광장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우리 때는 음반에 건전가요를 실어야 했고, 영어로 노래를 못해 개사했죠. 선글라스를 쓰고 머리가 길면 데뷔를 못했죠. 격변을 거쳐 이제 세계 최고의 K팝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30년간 음악 하는 자제가 영광스럽죠. 전 행운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는 데뷔 때를 또렷이 기억하며 “언더그라운드 생활하다가 부활과 만나서 함께 자취방에서 방바닥을 두드리며 ‘희야’를 만들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기억에 남는 추억 세 가지로는 공연 포스터를 직접 붙이고 약기를 나르던 부활이 첫 공연을 했을 때를 가장 먼저 꼽았다. 두 번째로는 1989년 솔로로 데뷔해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로 첫 날개를 펼쳤을 때, 세 번째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라고 했다.

향후 30년에 이뤄내고 싶은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다할 때까지 전국 방방곡곡의 팬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팬들을 찾아가는 콘서트”라며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전 세계 팬들을 찾아가면서 소극장, 대극장 가리지 않고 공연하는 게 마지막 꿈”이라고 말했다.

30주년을 기념한 행보도 전국 방방곡곡의 팬들을 찾아가는 전국투어 ‘무궁화 삼천리 모두 모여랏’이다. 또 지난 7월 1~2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연 ‘이승철 30주년 기념 콘서트-무궁화 삼천리’를 10월 7일 84분짜리 실황 DVD로 발매한다.

1년에 30회 이상 공연해 ‘라이브의 황제’, ‘보컬 신’으로 불리는 그는 그간 공연에서 밴드, 댄서, 음악 엔지니어 등 ‘크루’의 팀워크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가수가 공연장에서 노래 잘하는 건 기본입니다. 전 매년 타이틀을 바꿔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크리스마스 공연을 하는데 25년 이상 함께 한 공연 크루가 제몫이죠. 조명이나 영상 하나까지 어긋나지 않는 완벽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완성도가 높아지니까요.”

목소리를 지켜온 비결도 공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간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 번 공연하는 게 컨디션 비결”이라며 “2주만 쉬어도 감각이 떨어지는데 1주일에 한 번 꾸준히 공연하는 자체가 소리 유지의 비결”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능력 한계치 다 쏟아부었어요”

영화 ‘아수라’ 한도경 역 정우성

“제 능력의 한계치를 다 쏟아부은 영화입니다.”

후회도, 미련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다. 자신의 이름 석 자 앞에 지겹도록 따라붙는 외모에 대한 수식어도 이 영화 한 편으로 뛰어넘은 것 같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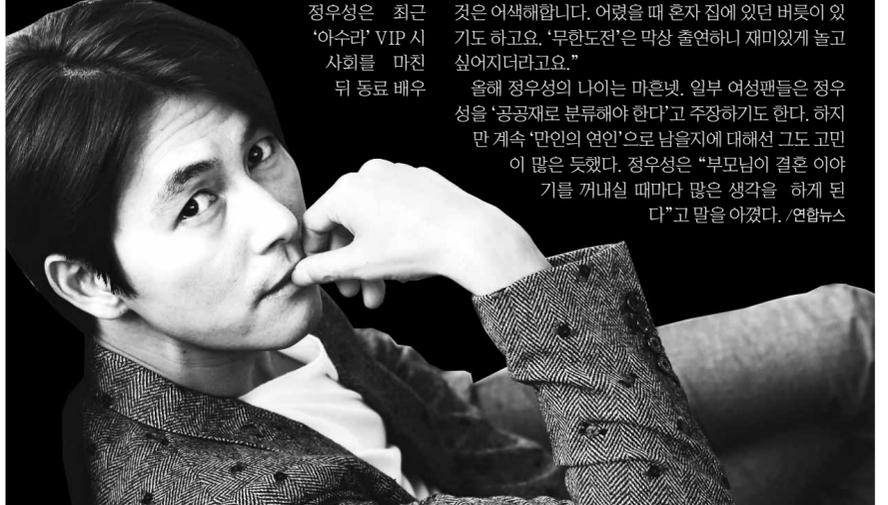
26일 종로구 삼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정우성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묻어났다. ‘아수라’가 흥행과 작품성, 본인의 연기 인생에서 한 획을 그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일까.

28일 개봉을 앞둔 ‘아수라’의 예매율은 현재 62.9%로 지난 3주간 극장가를 휩쓴 ‘밀정’(6.8%)을 가볍게 제쳤다.

‘아수라’는 불법과 범죄가 판치는 가상의 도시 안남시를 배경으로, 강력계 형사 한도경과 악덕 안남시장 박성배(황정민), 독종 검사 김차인(곽도원) 등이 각자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거침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야기를 담았다.

한도경 역을 맡은 정우성은 아픈 아내의 병원비를 벌려고 악덕 시장의 뒤를 비추며 온갖 나쁜 일을 도맡아 하다가 독종 검사 김차인이 자신의 목을 옥죄어오자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인물로 나온다. 김성수 감독과는 ‘비트’(1997년), ‘태양은 없다’(1998년), ‘무사’(2001년)에 이어 15년 만에 4번째 호흡을 맞췄다.

정우성은 최근 ‘아수라’ VIP 시사회를 마친 뒤 동료 배우



들로부터 “부럽다”는 칭찬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정말 치열하게 찍은 영화다. 촬영 현장에서의 고민과 서로에 대한 건전한 경쟁이 화면에 담겼다”며 “‘부럽다’는 칭찬 속에는 그런 치열함에 대해 부러움, ‘저렇게까지 몰아붙이는 데도, 어떻게 캐릭터들이 살아있지’라는 부러움 등이 내포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정우성은 자신의 외모에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좋은 것 같다”면서 “다만, 그런 수식어에 갇혀있지 않고 뛰어넘는 것이 배우의 숙제인 것 같다”고 했다. 그에게 수식어를 뛰어넘었는지를 묻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성은 극 중 한도경이 이쪽, 저쪽을 치어 발버둥 치는 이유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0대 중반은 꿈을 잃고 불안하고, 책임질 일이 많아진다”며 “살아남기 위해 시스템에 적당히 타협하며 발버둥 치는 40대의 스트레스가 한도경을 통해 극적으로 묘사됐다”고 했다.

영화를 찍는 동안 정우성은 그 스트레스를 온몸에 짊어진 한도경으로 살았다.

정우성은 ‘아수라’ 홍보를 위해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막춤을 추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망가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예능을 즐기는 듯 보였다.

“제가 원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흥이 많아요. 다만 흥이 안 맞는 사람들과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은 어색해합니다. 어렸을 때 혼자 집에 있던 버릇이 있기도 하고요. ‘무한도전’은 막상 출연하니 재미있게 놀고 싶어서더라고요.”

올해 정우성의 나이는 마흔넷. 일부 여성팬들은 정우성을 ‘공공재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계속 ‘만인의 연인’으로 남을지에 대해선 그도 고민이 많은 듯했다. 정우성은 “부모님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실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월에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25 TV 블로그 토크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감성애니 하루(재)	00 1대 100 (재)	00 월화 드라마 <캐리어를 끄는 여자>(재)	00 닥터 365 05 특집 다큐멘터리 <문명>
12	00 KBS 뉴스12	00 생생정보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재) 55 토크 콘서트 화통(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별별가족	00 수상한 휴가 (재)	20 문화사색	55 TV블로그 토크
2	00 2016 평창대관령음악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내꺼야 풀꽃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영재 발굴단(재)
3		00 자동차부착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퓌? 퓌! 키즈스쿨 55 파워배틀 와치카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 파レード 10 KBC 저녁뉴스 20 2018 평창동계올림픽 G-500 패스티벌 힐찬 함성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00 집중인터뷰 이사람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맨인 블랙박스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00 월화 드라마 <캐리어를 끄는 여자>	00 월화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 려>
11	00 KBS 뉴스라인 40 평창 동계올림픽 D-500 특집 <그녀들의 뜨거운 여름>	10 우리동네 예제능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인간극장 스페셜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10:30 한국기행(재)	13:55 캐니멀	19:00 소피 루비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4:25 정글에서 살아남기	19:30 EBS뉴스
(우간다 르윈조르트레일 습지)	(닭고기 드라이 카레와 토마토 샐러드)	-마루의 어드벤처(재)	19:50 극한직업 <갈치 잡는 사람들>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4:55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남달리 대화>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5:05 피터레밍	20:50 세계테마기행
07:00 레이디 비그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재)	15:20 아올레명 귀여워(재)	<매콤, 위대한 어머니의 갈을 가다 2부 매콤의 풍요를 맛보다>
07:30 로보카 폴리	12:40 지식채널e	15:35 오솔상자(2)	21:30 한국기행
07:45 꼬마버스 타요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15:45 코코몽 3	<동네의 영웅 2부>
08:00 덩동덩 유치원1~3	13:35 뷰티풀 코리아	16:15 방귀대장 뽕뽕(재)	그 곳에 가면 영웅이 산다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파도와 바람의 노래, 신두리 해안사구)	16:30 부릉부릉 부르미즈(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3:40 즐겨찾 수확 EBS MATH	16:45 덩동덩 유치원1~3(재)	22:45 글로벌 아빠 황이 섬만리
09:15 출동! 슈퍼윈즈	13:50 그림을 그려요(2)	17:30 로보카 폴리(재)	23:35 미스터리 휴먼 다큐
09:30 이암! 스페이스 정글		17:45 꼬마버스 타요(재)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8:00 생방송 특집! 보니하니~4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7일 (음 8월 27일 壬子)	
子	48년생 변동수가 보이나 이를 감안 해야겠다. 60년생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한다면 틀림없겠다. 72년생 밤심하다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84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속출하리라. 행운의 숫자 : 90, 41	午	42년생 도모한다면 즉시 결실을 볼 수 있는 때가 되었다. 54년생 정황을 이루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쫓아내야 한다. 66년생 물입한다면 향성면 면모를 보일 수 있다. 78년생 빠졌어야 준비해 뒤야만 대처하기에 용이하다. 행운의 숫자 : 03, 83
丑	49년생 속 시원한 것보다 원만한 것이 가장 무난하리라. 61년생 진행한다면 무조건 성사된다. 73년생 재만사가 길하니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자. 85년생 맹점만 보완하면 이전보다 훨씬 나은 국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니. 행운의 숫자 : 11, 51	未	43년생 실제로 접해 보기 전에는 속단하지 마라. 55년생 오래 가는 못 할 것이니 지켜보고만 있으면 된다. 67년생 실요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핵심 요건이다. 79년생 외관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할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60, 12
寅	50년생 결정적인 판세로 이끄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62년생 눈앞에 놓여 있더라도 직접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성취하느니라. 74년생 독창적인 방식을 세우자. 86년생 변동한다면 불길 하리라. 행운의 숫자 : 05, 62	申	44년생 여러 가지가 겹쳐지는 단계이다. 56년생 새로운 일의 도모는 불길하니 현실에 충실하자. 68년생 중요한 것들이니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다. 80년생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25, 66
卯	51년생 광각으로 인한 손실이 상당히 클 것이니. 63년생 해결하기 관련한 고민거리가 보인다. 75년생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해결하게 되느니라. 87년생 행복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69, 18	酉	45년생 외부에는 전혀 노출하지 않음이 합당하다. 57년생 요령과 지혜를 총 동원해야 가까스로 수습할 수 있다. 69년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81년생 배려하는 마음이 생산적인 관계로 이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1, 82
辰	40년생 무리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52년생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하다. 64년생 변화의 추구가 절실하다. 76년생 임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이니 집착하지 마라. 88년생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37, 40	戌	46년생 묵묵히 진행해 나가지만 허변 궁극적으로 성사되리라. 58년생 가까운 곳에 분명히 하자가 있을 것이니 잘 살펴보아라. 70년생 앞으로 복잡해질 것이니 체계를 잡자. 82년생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할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 56, 36
巳	41년생 유망한 미래를 여는 단초를 마련한다. 53년생 한 번 빠져들면 헤어지지 못하리라. 65년생 의연해질 필요가 있다. 77년생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후련함이 보인다. 89년생 탈탈 상황에 대처하느니라 부심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7, 98	亥	47년생 머지않아 진면모가 확연히 드러날 것이니 답답해 할 필요가 없느니라. 59년생 밤심하지 않으면 지가 돌이켜 볼 일이다. 71년생 기존의 것을 고수하라. 83년생 북이 흥으로 변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8, 1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